

 기획재정부		<h1>보도자료</h1>	
보도일시	2021. 11. 24.(수) 17:30	배포일시	2021. 11. 24.(수) 17:00
담당과장	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 이승한 (044-215-4530)	담당자	김태웅 서기관 (kimtw41@korea.kr) 김한필 사무관 (kimhanpil@korea.kr)

홍남기 부총리, 공급망 점검 현장방문
[희토류 금속 생산기업 'KSM 메탈스'社 및 대전지방조달청 비축기지]
- 대외의존 품목 공급망 안정화 위해 총력 대응 -

-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'21. 11. 24(수) 오후 충북 청주에 위치한 희토류 금속 생산기업인 "KSM 메탈스"와 대전지방조달청 소재 비축기지를 방문하여,
- 20대 우선관리품목 등 경제안보핵심품목의 국내 자립 기반 확보 진행상황 및 비축현황 등을 점검하였음

< 공급망 점검 현장방문 개요 >

- ① KSM 메탈스社(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)
 - 일시: '21.11.24.(수) 14:30~15:10
- ② 대전지방조달청 비축기지(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)
 - 일시: '21.11.24.(수) 16:10~16:30
- ※ 참석자 : 부총리, 기재부 차관보, 조달청 차장, KSM 메탈스 대표 등

- 홍 부총리는 먼저 충북 청주의 KSM 메탈스를 방문하여 20대 품목의 하나인 네오디뮴의 공급망 국내 자립화 상황에 대해 청취한 후, 생산시설 구축현장 등을 시찰하였음
- 동 회사는 항공용·의료용으로 사용되는 티타늄 합금·분말, 전기차 모터의 소재인 네오디뮴 금속 등 희토류 금속 생산을 목표로 지난 6월 설립하여 내년 7월경 연 5천톤 규모 생산설비를 구축·가동 예정

□ 홍 부총리는 코로나 이후 전반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약화·훼손되면서, GVC 안전망에 대한 우려와 경각이 최근 더 부각되었으며, 전략물자가 아닌 범용품목인 요소수 부족사태가 그 대표적 사례라고 진단

○ 이에 정부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3~4,000개 품목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하고, 조만간 경제안보 핵심품목 1~200여개를 선정하여 모니터링과 맞춤형 수급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

- 특히, 이 중 시급성이 큰 20개 품목*은 우선관리대상으로 선정을 완료하여 “국내 생산역량 제고+전략적 비축+수입선 다변화” 등을 적극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

* (예) 마그네슘, 텅스텐, 네오디뮴, 수산화리튬 등

□ 금일 방문한 KSM 메탈스는 20개 우선관리품목의 하나로 전기차 생산 등에 필수적인 네오디뮴 영구자석의 핵심소재인 네오디뮴 금속을 국내 최초로 생산 추진 중

○ 이에 따라, 日 수출규제 계기 본격화된 소부장 경쟁력강화 정책의 핵심인 수요·공급 기업간 협력모델로 선정*되어 내년부터 KSM 메탈스 등 협력기업들에게 R&D 등을 패키지 지원할 예정

* 제7차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(21.5.25)시 승인된 협력사업(모델) 8건에 포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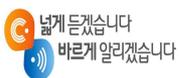
○ 밸류체인 차원에서는 희토류 주요생산국인 호주의 투자를 유치하여 희소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효과와 함께,

- 향후 국내 유턴기업과의 후속생산 연계를 통해 경제안보 핵심품목 국내 자립기반 구축의 모범적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

* (원료) 호주 A사 → (네오디뮴 금속) KSM → (영구자석) 유턴기업(예정) → (구동모터) 완제품 기업

→ 동 협력모델을 성공적으로 추진시 '25년까지 1,500억원 규모 네오디뮴 금속·영구자석 생산을 통해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중인 시장수요의 30% 국내생산 전환 효과 기대

- 홍 부총리는 동 협력모델은 소부장 정책이 실제 산업 현장에 정착하여 작동하고 있는 좋은 사례로, 전략물자 및 중요 범용품목에 대한 GVC 안전망 구축 및 가동에 더욱 매진할 것임을 강조
 - 20개 품목 포함 여타 경제안보 핵심품목의 국내생산 전환, 수입선 대체 등 수급안정화 방안을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언급
- 이어서 홍 부총리는 대전 지방조달청 비축기지로 이동하여 조달청이 비축중인 희소·비철금속 등 전략물자 비축현황을 점검하고 비축시설을 시찰하였음
 - 조달청은 현재 비철금속 6종 22만톤(55.1일분), 희소금속 9종 23만톤(40.2일분), 마스크 1.5억장 등을 비축대상물자로 비축중이며, 대전비축기지*에도 우선관리품목 20개중 일부를 비축
 - * 대전비축기지에 비철금속 2종, 희소금속 3종 등 비축
 - 비상시 대비 장기비축물량 외 일부 물량(연 2~3,000억원 규모)을 중소기업 대상으로 방출하고 있으나 올해는 원자재 가격 급등**에 따라 비철금속 등 방출을 전년대비 3배이상으로 확대*** 중
 - * LMEX(6대 비철금속 가격 지수): ('20.12말)3,415 ('21.6말)4,152 (10말)4,394 (11.19)4,398
 - ** 비철금속 방출판매규모 전년동기대비 234.5% 증가(100,724톤, 5,489억원, '21.1~10월 합계)
 - 홍 부총리는, 공급망 안전장치로서 정부 비축사업의 중요성을 평가하고, 20대 품목 등 핵심품목 관리를 위한 조달청·광해광업공단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 필요성 강조
 - 이를 위해, 긴급수급 조절물자 지정 등을 통해 비축대상을 현재 금속 위주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물자 등으로 확대하고,
 - 아울러 희소금속 비축물량을 최대 180일까지(30~100일 → 60~180일) 조속히 늘리고, 비축품목 추가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힘



기획재정부 대변인
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@korea.kr

